

2. 성경에 나타난 이름의 복음(4월 3일)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序; 이 말씀을 읽으면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만일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그 아기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를 아가야라고 부르기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할 것이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기가 무척 힘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 혹은 그 사물의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그 사물이나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지요. 이름은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가 짓지요. 이름을 짓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런 사상을 꽃이라는 시로 잘 형상화하였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개념이 없다. 의미가 없다. 존재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다.

이래서 성경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실체가 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분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고 묻는다. 이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중요하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계시하는 이름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볼 준비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 말씀의 서론 격이 되겠습니다.

1. 네 이름이 무엇이나?

창32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압복강 나무에서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는 자기의 과거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속이는 자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는 속인 사실 위에 세워진 인간이었다. 형이 군사를 데리고 달려오는 것과 그의 과거는 직결되어 있다.

그런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 그때 그가 어떤 분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밤새도록 그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 야곱이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 야곱에게 놓아라. 가야 한다고 하신다. 야곱이 그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작심하고 말하자, 그가 물었다.

[창32: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이것은 야곱의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중요하다. 야곱은 야곱이니이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자기 전 인격을 고백하는 순간이다.

오늘 우리도 누구요? 하고 물으면 자기 이름을 댈다. 그것은 자기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출3:13]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3장에는 야곱의 경우와 반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나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신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는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이 이름의 의미를 올바르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돈독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름에 대한 성경의 사상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다음에 계속하여 살펴볼 것이다.

2. 이름을 지음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름을 지으셨다.

[창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구에 창조한 만물들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지구의 피조물들의 이

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다. 지구의 피조물들은 아담으로 인하여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지구의 만물은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사람이 그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창5:1,2]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람은 그의 창조주로 인하여 존재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다.

사람이라는 이름은 참 고귀한 이름이다. 창조주께서 친히 복을 주어서 지어준 이름이다.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무엇인가? 영생이다.

[시133: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름 자체에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새겨놓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이름이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성경에 특별한 사실에 열거된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복음의 의미와 내용을 숨겨놓기도 하셨다.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지어준 하와라는 이름에 복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가인이나 아벨이라는 이름에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의미들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들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이름과 11장에 있는 노아의 후손 곧 셈과 그 후손들의 이름에도 인상 깊게 새겨놓았다.

창세기 5:1~32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의미를 우리말로 풀이하여 그 의미를 연결하면 곧 구주가 하실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1:10~26에는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의 이름이 있는데, 역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말로 풀어 그 의미를 연결하면 구주가 하실 일이 드러난다. 이런 설명을 듣고 어떤 분들은 억지로 잘 꿰어 맞추었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이 구주를 소개하고 있고, 구주가 오실 예언적 계통을 족보로 기록할 때에 이런 복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름에서 이런 의미를 찾아 진리와 은혜를 맛보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이제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자.

아담=사람, 셋=대신함, 에노스=약한 사람, 게난=정해진 거주지, 마할랄렐=하나님을 찬양함, 야렛=내려옴, 에녹=시작함, 순종하는 자, 므두셀라=싸우는 자, 무장한 자, 라멕=정복자, 강한자, 노아=위로자, 안식

이 이름의 뜻을 차례로 연결하여 작문을 하면, **[사람을 대신한 연약한 사람이 정해진 거주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 내려와, 시작한 싸움을 싸워서 정복하고 안식을 주었다(위로자가 되었다).]**

11장의 셈의 족보의 이름도 뜻을 풀어보자.

셈=명성, 아르박삿=성채(城砦), 셀라=내어보낸 자, 에벨=건너간 자, 넘어온 자, 벨렉=나누이다, 분열, 르우=친구, 스룩=영기어 감긴 자, 포도넝쿨, 나홀=떨시, 콧김, 데라=신랑, 아브람=존귀한 아버지

이 이름의 뜻도 차례로 연결하여 작문을 하면, **[명성 있는 자를 성채에서 내어보내어 건너와, 나누인(분열된) 것의 친구가 되어서 영기어 감겨서 떨시를 받은 신랑이지만 존귀한 아버지이다.]**

이 두 족보의 이름들의 뜻을 풀어 연결하여 작문을 하니까 구주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성경의 이름들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어 주고 있다. 모세라는 이름도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여호수아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7:1]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쓴다. 그 이름에 운명이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작명가들의 말이다. 어찌면 그런 사상이 성경에서 흘러나와서 미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름의 신학 때문에 이름을 짓는 일과 이름을 바꾸는 일이 조심스럽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전 인격과 존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신분과 지위와 처지가 바뀌면 이름을 바꾸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다.

3. 이름이 바뀔 때

하나님은 압복강 가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그가 야곱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주셨다.

[창32: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고 성경이 해석하였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담긴 것을 알 수 있다.

[창32: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조금 언어유희(言語遊戯)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는 사람이라는 말 이쉬와 통하는 말이다. “라”는 본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뜻이 된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였다.(출33:20)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람이 바뀐 것이다. 전에는 야곱 곧, 속이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런 자아를 이긴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단순하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여지기 때문이다.(마5:8)

이렇게 되었을 때 그의 인격이 바뀌었다. 그의 생명과 존재가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걸맞은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을 바꾸어주실 때, 그가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바꾸어주었다.

이런 것과 반대 되는 것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 그들이 포로들 중에 선발되어 왕궁에서 왕립학교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식을 바꾸었다. 다니엘=벨드사살, 하나냐=사드락, 미사엘=메삭, 아사랴=아벳느고 그들의 본명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장 그런데 바벨론 사람은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여 벨신의 수호자, 하나냐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디를 사드락, 태양의 영감으로,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를 비너스에 속한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시디, 느고의 종이요 바꾸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종교의 추종자들이 되라고 지은 이름이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다니엘서에 읽을 수 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성경의 이름에 나타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명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는 집단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면 그리스도인 전체가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이다.

4. 하나님의 이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엄숙하게 계시한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맨 먼저 아뢰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6:9)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시30:4]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이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거룩한 이름이다.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대상16:29]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

[시29:2]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

[시96: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옛 이스라엘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십계명의 제3계명이 분명히 밝혔다.

[겔36:20]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겔36:2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겔39: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이름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을 고쳤을 때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행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마침내 온 우주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다.

[빌2:9~1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동일시하고 있다. 나의 이름이 김명호이다. 이 이름을 대하고 이 이름과 무엇을 하는 것은 곧 나를 직접 만나서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상이다. 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내가 직접 그곳에 가는 것과 같다는 사상이다.

이름

김 명 호

내 이름을 내가 쓰고
도장을 찍었을 때
내 전부가 거기 눌러 있지만

이름은
언제나
남이 쓰는 것.

내 이름
스스로 지은 적이 없어도
그것은
언제나 나를 굴레 씌운다.

하여도
내게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형체뿐
나는 없었고

숨 쉬는 형체가
이름으로 불렸을 때
그 때
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름이
쓰이고 불릴 때마다
영육이 색칠되고
형체 없는 실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거기 내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쓰면 명의 도용 죄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잘못 쓰면 명의 도용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지자, 귀신 쫓아내기, 권능 행하기를 한 것이다. 그들에게 명의 도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름의 복음적 사상을 알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와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다. 이제 앞으로 몇 번 이 이름에 나타난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나누려고 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도록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